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초산모의 부모 전이기 양육 경험 유형 분류 및 예측 요인 탐색」 토론문

기쁘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본 연구는 초산모의 부모 전이기 양육경험을 사람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을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한 후 그 유형별 집단 차이를 살펴보았고, 그 유형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들을 검증하였습니다. 초산모의 부모 전이기 시기가 부모에게 매우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이 시기 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본 연구는 의의가 크고, 부모 뿐만 아니라 부모 전이기 관련 육아 및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정책입안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본 논문은 연구 결과가 제공하는 다양한 함의점에 대해서 잘 정리하였고,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적응적 양육 집단과 적응적 양육 집단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교육 여부의 평균이 거의 동일한데, 나머지 변인들에서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띤다는 점입니다.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정도는 비슷하나 적응의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적응적 양육에 다른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양육 집단이 교육을 받은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응적인 양육 집단보다 적응의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적응적 양육집단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징(출산전 우울, 출산후 우울, 자아 존중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어머니의 심리적 자원과 아버지의 역할이 적응적 양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중요성이 변수중심의 연구 뿐 아니라 사람중심 접근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심리적 자원의 힘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높은 수준의 정서적 자녀가치, 긍정적 양육행동, 낮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어 양육경험을 적응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언급하였듯이, 우리 사회에서 양육을 처음 시작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자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고, 아버지 역할 및 아버지 교육과 관련해서도 정책, 연구, 서비스 및 사회적 관심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 경험 유형 분류의 예측요인에서 출산 전 우울이 낮을수록 적응적 양육집

단보다는 부적응적 양육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를 기대 불일치 이론으로 해석하여 낙관적 기대로 인해 우울이 드러나지 않다가 실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여 부적응집단에 속할 수 있다는 해석 역시 흥미롭습니다. 다만, 우울이라는 심리적 상태는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부적응의 선행지표로 보고되기 때문에, 산전 우울이 낮을수록 부적응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사실 해석하기 꽤 어려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연구결과의 자료가 좀 더 쌓여야 설득력 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산전 및 산후의 시기는 호르몬 변화가 심한 시기로 이 시기의 우울은 평소의 우울상태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자녀의 기질을 하나의 예측변인으로 고려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장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양육관련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다루지만, 사실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가족구성원은 한 체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자녀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도 큼니다. 이러한 자녀의 기질이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양육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이 아니었다는 점 역시 흥미롭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본연의 기질이 있으나, 개인의 성정 또는 성격이라는 영역이 인생 초기 주양육자 및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의 기질 관련 변수는 신생아기 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함의점에 더해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면 더욱 완성도 있는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정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예: 초산모의 나이, 교육수준, 근로 관련, 경제적 수준 등)가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몇몇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예측요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평균, 퍼센트 등의 정보가 표로 정리되면 연구참여자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이 참석한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여부 변인과 관련해서 네 가지 영역(신생아 돌봄, 산모 건강 관리, 신생아와의 상호작용 촉진 교육, 영아 돌연사 위험 요인과 예방)의 교육명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양과 질과 관련된 내용은 제한적이라 교육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더욱 구체적인 해석과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준비되지 않은 양육 집단의 집단명이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합니다. 즉, 교육을 이수한 횟수가 비교적 적다고 해서 양육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양육에 대한 준비는 교육여부 이외에도 매우 광범위한 변인이 포함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형명에 대하여 재고해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여부 변인명을 반영하여 '양육에 대한 (사전)교육이 부족한' 등의 워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잠재집단의 수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4개의 집단일 때의 통계적 수치가 양호하기 때문

에, 최종 집단의 수를 3개로 결정한 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석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3개로 결정했다면, 4개로 정했을 때 면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로 나뉘는 새로운 유형이 채택되지 못한 근거가 제공된다면 3개 집단에 대한 설득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본 논문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흥미로운 후속연구도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연구자도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Belsky의 양육과정모델에 근거하여 생태체계의 미시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환경적, 사회인구학적 요소들을 다양하게 포함한 연구가 향후 진행된다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특히 양육은 양육하는 사람의 삶의 경험치와 연륜에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응적 양육집단과 부적응적 양육집단으로 분류되는 데에 양육자의 연령이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패널자료의 큰 장점인 종단 자료가 향후 수집될텐데, 현재 나뉘어진 유형이 미래에는 어떻게 다르게 혹은 동일하게 분류될지, 다르게 분류된다면 예측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후속연구에서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기초연구로 하여 더욱 다양한 변형연구가 진행된다면 양육경험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 유형과 관련된 다양한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고,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